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한 실질 국방비 규모와 실질 GDP와의 관계 분석

(The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Real Military
Expenditure and Real GDP through Regression Analysis)

† 백 병 선(Byung-Sun Baek),* 문 장 렬(Jang-Yeol Moon)**

초 록

군사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군사력을 건설·정비·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가 요구되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무작정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안보위협과 경제적 여건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경제적 여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 국방비 규모와 실질 GDP의 규모 즉, 경제적 여건과의 관계를 회귀기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Military Power is the most direct and actual measures for national security. For construction, maintenance, management of military power, the adequate expenditure is required but it is difficult to increase blindly owing to the lack of resources. There are security threats and economic conditions in determining of military expenditure. Republic of Korea has been more influenced by economic conditions than by security threats since 1990s In this paper, we analysed relation between real military expenditure and real GDP through regression analysis.

Keywords : Military Expenditure, Military Power, Real GDP, Security Threats, Economic condition

논문접수일 : 2010년 5월 18일 심사(수정)일 : 2010년 7월 7일 논문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20일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박사과정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 교신저자

1. 서론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이란 군사, 非군사에 걸친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제 가치를 보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의 제 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발생한 불시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1]. 이러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수단 중에서 군사력(軍事力)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물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군사력의 건설·정비·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의 건설·정비·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정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크게 안보위협과 경제적 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국방비를 결정함에 있어 안보위협을 무시하고, 재정능력 등 경제적 여건만을 고려하여 국방비가 과소 책정되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며, 이와 반대로 안보위협에 따른 군사소요만을 감안하여 재정능력을 과다하게 초과할 정도로 국방비가 책정되면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 및 잠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분쟁당사국으로서 국방비 규모 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보위협’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결과라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 등 비군사부문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방비는 어떤 다른 요소보다도 경제적 여건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2].

일반적으로 국방비를 비교할 때 경우 GDP 대

비 비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때 GDP는 각국의 경제력 및 안보위협 등 모든 여건이 상이한 상태에서 국방비에 대한 상대적 투자율을 알 수 있게 하는 지수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정 국방비를 결정함에 있어 GDP 대비 국방비의 비율로는 적정 국방비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에도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국방비 규모와 경제적 여건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SIPRI Yearbook에서 제공하는 2005년 기준 실질 국방비와 UN에서 제공하는 1990년 기준 실질 GDP를 사용하였다[3]. 그리고 이 두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질 국방비를 종속변수로, 실질 GDP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귀분석으로 이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아울러 주변국, 주요 분쟁 및 대치국들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평화상태의 국가들에 대한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를 분석하여 이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국방비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반적 고찰

2.1 국방비 규모 결정 이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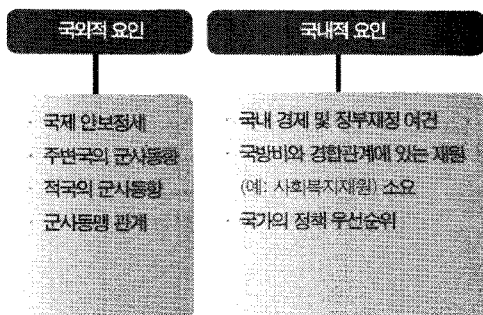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국방비 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으로서, 특정 국가의 국방비는 동맹국과의 관계 및 적대국과의 관계 등 주로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며,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현실주의 이론(realist view), 동맹경제 이론(economic theory of alliance), 지정학적 이론(geopolitical theory), 군비경쟁 이론(arms race theory) 등이 있다. 두 번째는 국내정치 환경의 변화 또는 사회적 여건 등

국내적 환경에 의해 국방비 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이며,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정권의 정책우선순위 이론, 관료정치 이론(bureaucratic politics theory), 기회비용 이론(opportunity cost theory), 거시경제적 이론(macroeconomic consideration theory) 등이 있다. 이러한 국방비 결정 이론들을 정리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보위협과 경제적 여건이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2.2 국방비 결정 규모 변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방비 규모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요인들이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국외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2].

한국의 경우 195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는 전후복구와 경제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국방비는 하향추세를 보였으며, 1970년대~1980년대 초반까지는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여건의 악화 등으로 상향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80년대~2000년대에는 복지수요 및 외환위기 등에 의한 영향으로 국방비는 다시 하향추세를 나타내는 등 한국의 국방비는, 특히 경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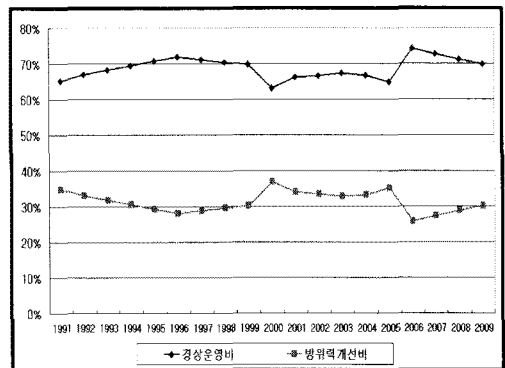


<그림 1>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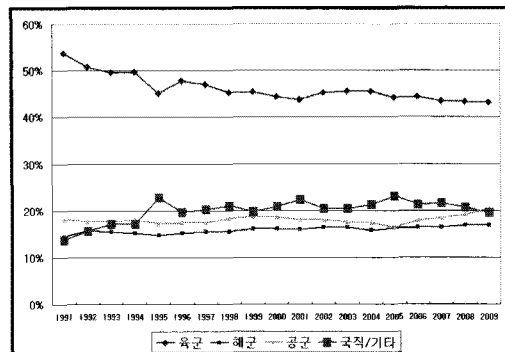
2.3 한국 국방비의 현실

한국의 국방비는 크게 경상운영비(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병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급식·피복비 등 병력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전력유지비는 시설건설비, 교육훈련비, 장비유지비 등 병력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위력개선비는 무기체계 획득비 및 개발비 등 전력 증강을 위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기존에 방위력개선비에 속해 있던 장비유지비 등은 전력유지비로 이체되었다.

한국은 그 동안 대규모 병력을 운영·유지하기 위해서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에 대부분의 비용이 배분되었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그림 2> 한국의 국방예산 배분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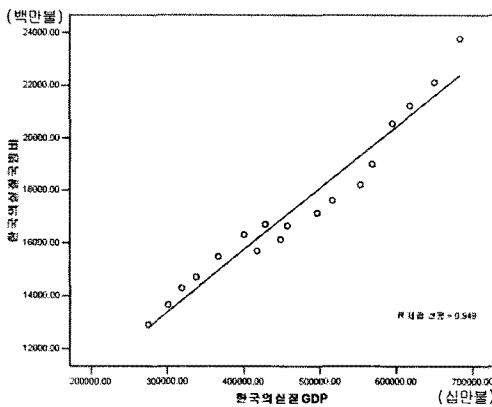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국방예산 군별배분 현황(2)

의 국방예산의 경우 경상운영비는 평균 68.8%, 방위력개선비는 평균 31.2%로 경상운영비에 비해 방위력개선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09년까지 군별 평균 국방예산의 경우, 육군(46.2%), 국직/기타(19.9%), 공군(18.0%), 해군(15.9%) 순으로 한국의 국방예산은, 특히 육군에 편중되어 있어 현재 및 미래의 잠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해군과 공군의 국방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육군의 경우도 대규모 병력을 운영·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위력개선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배분 현황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4].

3. 한국의 실질 국방비

3.1 실질 국방비 Vs. 실질 GDP

1991년부터 2009년까지의 실질 국방예산을 종속변수로, 실질 GDP를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이



<그림 4> 산점도 - 한국의 실질 국방비 Vs. 실질 GDP

<표 1> 회귀분석 - 한국의 실질 국방비 Vs. 실질 GDP

r값	n	실질 국방비의 편회귀계수
.974	19	.023

* 실질 국방비 = 0.023 × 실질 GDP + 6348.348

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여기에서 상관계수 r은 -1부터 1까지의 값을 취하며, 상관계수의 절대치 혹은 상관계수의 자승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r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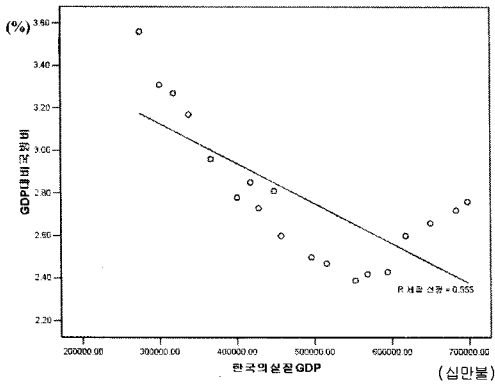
- r이 -0.1과 +0.1 사이이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선형관계,
- r이 ±0.1과 ±0.3 사이이면 약한 양적/음적 선형관계,
- r이 ±0.3과 ±0.7 사이이면 뚜렷한 양적/음적 선형관계,
- r이 ±0.7과 ±1.0 사이이면 강한 양적/음적 선형관계,

그리고 편회귀계수는 도출된 회귀식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독립변수의 변동량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동량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편회귀계수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종속변수인 한국의 실질 국방비에 대한 독립변수인 한국의 실질 GDP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실질 국방비는 실질 GDP와 강한 양적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의 실질 GDP가 증가할 경우 실질 국방비 역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때 실질 GDP에 대한 편회귀계수는 0.023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실질 GDP 증가에 따라 실질 국방비는 0.023의 비율로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3.2 GDP 대비 국방비 Vs. 실질 GDP

1991년부터 2009년까지의 GDP 대비 국방비(%)를 종속변수로, 실질 GDP를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그림 5〉 산점도 -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Vs. 실질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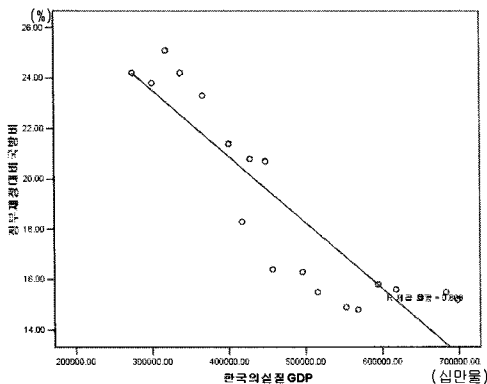
〈표 2〉 회귀분석 - GDP 대비 국방비 Vs. 실질 GDP

r값	n	실질 국방비의 편회귀계수
-.745	19	-1.88E-06

따라서 GDP 대비 국방비(%)의 경우 실질 GDP와 강한 음적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실질 GDP의 증가율에 비해 실질 국방비의 증가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3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Vs. 실질 GDP

1991년부터 2009년까지의 정부재정 대비 국방



〈그림 6〉 산점도 - 한국의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Vs. 실질 GDP

비(%)를 종속변수로, 실질 GDP를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회귀분석 -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Vs. 실질 GDP

r값	n	실질 국방비의 편회귀계수
-.899	19	-2.63E-05

따라서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의 경우 실질 GDP와 강한 음적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실질 GDP의 증가율에 비해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의 증가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의 관계를 분석하면, 실질 GDP에 대한 편회귀계수는 0.023이며, 이 때 상관계수 r 값은 0.974로 한국의 실질 국방비는 실질 GDP와 강한 양적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GDP 대비 국방비(%)와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는 실질 GDP와 음적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실질 국방비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강한 양적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 GDP의 증가에 따른 실질 국방비의 증가율(0.023)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 주요 국가별 비교

4.1 주변국

한국의 대표적인 잠재위협으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선정할 수 있다. 한국의 국방비를 주변국들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6].

2008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 대비 중국은 약 3.5배, 러시아 약 2.4배, 일본 약 1.9배의 규모로 지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연도별 실질 국방비와 누적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3].

〈표 4〉 주변 국가들의 국방비 비교(2008년)

구분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국방비(bn\$)	[58.6]	[84.9]	46.3	24.2
세계 국방비 비율(%)	[4.0]	[5.8]	3.2	1.7
GDP 대비 국방비 비율(%)	[3.5]	[2.0]	0.9	2.7
국민 1인당 국방비(\$)	[413]	[63]	361	501

* [] : 추정치

〈표 5〉 주변국가의 회귀분석 결과

(실질 국방비 Vs. 실질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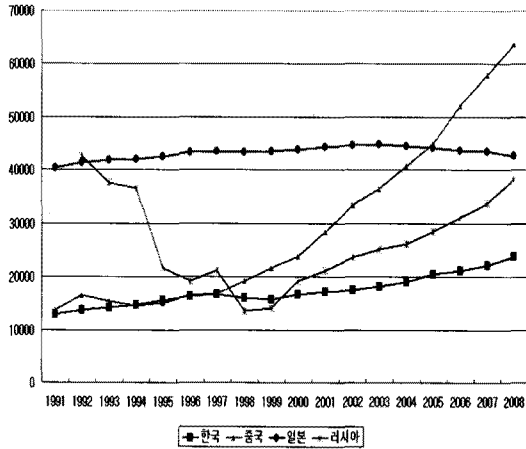
국가명	상관계수 r값	실질 국방비의 편회계수
중국	.982	.031
일본	.602	.003
러시아	.860	.009

위의 그림에 따르면, 중국은 국방비를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 국방비 누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국방비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실질 국방비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7].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1998년까지 실질 국방비가 감소하였으나 2000년부터 실질 국방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실질 국방비의 변동은 적으나 국방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실질 국방비 누적에 있어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실질 국방비는 주변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실질 국방비 누적현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주변국들의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실질 국방비를 종속변수로, 실질 GDP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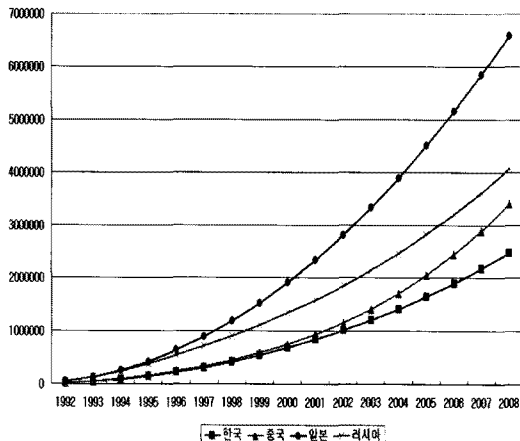
〈표 5〉에 따르면, 중국은 실질 국방비의 편회계수가 가장 크며, 이와 아울러 실질 GDP와 강한 양적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국방비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신뢰 여부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중국의 국방비는 더욱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7]. 일본은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간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GDP 대비 1%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본이 군비증강에 돌입하게 된다면

(단위 : 억불)



〈그림 7〉 주변국의 실질 국방비 현황

(단위 : 억불)



〈그림 8〉 주변국의 실질 국방비 누적 현황

일본은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는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간 강한 양적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실질 국방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의 대표적 잠재위협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경우 실질 국방비에 있어서 한국보다 월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실질 국방비 누적현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의 상관계수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이는 경제이외의 요인, 예컨대 안보위협 요인 등이 국방비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한국보다 더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2 주요 분쟁 및 대치국들

세계분쟁 및 대치국들은 평균 GDP 대비 5~6%의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다. 주요 분쟁 및 대치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현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8].

주요 분쟁 및 대치국들의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실질 국방비를 종속변수로, 실질

<표 6> 주요 분쟁 및 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국가명	상관계수 r값	실질 국방비의 편회귀계수
북한	.869	.234
요르단	.822	.065
이스라엘	.736	.034
사우디	.921	.248
쿠웨이트	-.475	-.155
시리아	.767	.154

<표 7> 주요 분쟁 및 대치국들의 회귀분석 결과 (실질 국방비 Vs. 실질 GDP)

국가명	상관계수 r값	실질 국방비의 편회귀계수
북한	.869	.234
요르단	.822	.065
이스라엘	.736	.034
사우디	.921	.248
쿠웨이트	-.475	-.155
시리아	.767	.154

* 북한의 경우 SIPRI Yearbook 2003 자료 사용

GDP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한국의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의 상관계수 r 값이 0.974인 반면에 주요 분쟁 및 대치국들의 경우 한국보다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질 국방비의 편회귀계수의 경우 한국은 0.023인 반면에 주요 분쟁 및 대치국들의 경우 한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요 분쟁 및 대치국들과 한국을 비교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실질 국방비는 실질 GDP와 상관관계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들 국가들의 경우 한국보다 경제외적 요소가 더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실질 GDP가 증가할 경우 한국보다 더 높은 비율로 실질 국방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주요 평화국

영국의 경제평화연구소(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 IEP)는 대표적인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IU)와 매년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 GPI)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계평화지수는 무기수출, 폭력범죄의 정도, 전쟁 사상자, 죄수 규모, 조직범죄 수준, 잠

* 북한의 경우 SIPRI Yearbook 2003 자료 사용

〈표 8〉 주요 평화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국가명	GDP 대비 국방비(%)
루마니아	1.6
폴란드	2
보츠와나	3(추정치)
영국	2.4

재적인 테러 공격 위험, 사회·정치적 갈등 등 23개 지표에 대해 1~5점을 매겨 산출되며, 1에 가까울수록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평화지수 2009에 따르면 한국은 1.627점으로 전체 144개 국가 중에서 33위를 기록하였다. 한국과 평화지수가 비슷한 국가로는 루마니아(1.591, 31위), 폴란드(1.599, 32위), 보츠와나(1.643, 34위), 영국(1.647, 35위)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2007년도 기준 GDP 대비 국방비(%)는 다음과 같다[6].

이들 국가들의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실질 국방비를 종속변수로, 실질 GDP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표 9>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의 상관계수 r 값이 0.974임 고려할 경우 한국과 세계평화지수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의 경우 한국보다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질 국방비의 편회귀계수는 한국의 실질 국방비 편회귀계수 0.023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세계평화지수가

〈표 9〉 주요 분쟁 및 대치국들 회귀분석 결과
(실질 국방비 Vs. 실질 GDP)

국가명	상관계수 r 값	실질 국방비의 편회귀계수
루마니아	.266	.022
폴란드	.939	.043
보츠와나	.825	.030
영국	.030	.001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실질 국방비는 실질 GDP와 상관관계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한국과 유사하거나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들 국가들의 경우 한국보다 경제외적 요소가 더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실질 GDP가 증가할 경우 한국과 유사하거나 또는 더 높은 비율로 실질 국방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국방비와 경제적 여건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질 국방비를 종속변수로, 실질 GDP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실질 국방비와 실질 GDP의 상관계수 r 값은 0.974로서 강한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실질 국방비의 편회귀계수는 0.023이 도출되었다.

여기에서 도출된 상관계수 r 값과 실질 국방비의 편회귀계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해 ① 주변국, ② 주요 분쟁 및 대치국들, ③ 한국의 세계평화지수(GPI)와 비슷한 국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상관계수 r 값은 이들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편회귀계수의 경우 ②, ③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사하거나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곧 이들 국가들의 경우 한국보다 경제외적 요소가 더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실질 GDP가 증가할 경우 한국과 유사하거나 또는 더 높은 비율로 실질 국방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들 국가들의 경우 ① 주변국의 경우 냉전 종식 이후 냉전시대의 전략적 확실성이 소멸됨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서 실질 국방비를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② 주요 분쟁 및 대치국들의 경우 실질 GDP에 영향을 받지만 안보위협에

따라 실질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③ 한국과 세계평화지수(GPI)가 비슷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실질 국방비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실질 GDP에 영향을 받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실질 GDP가 증가할 경우 한국과 유사하거나 또는 더 높은 비율로 실질 국방비가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 [1] 국방대학교, 『안보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p. 11.
- [2] 국방부, 『국방개혁2020과 국방비』 (서울 : 국방부, 2006), p. 3.
- [3] <http://milexdata.sipri.org> (검색일 : 2009. 5. 13); <http://unstats.un.org/unsd/snaama/selbasicFast.asp> (검색일 : 2009. 5. 13)
- [4] http://www.kida.re.kr/ja_statistic/subindex_11.asp?g=1(검색일 : 2010. 5. 12) 내용을 필자가 재편집.
- [5] 원태연·정성원, 『통계조사 분석』 (서울 : 한나래, 2006), pp. 318-319.
- [6] *SIPRI Yearbook 2009*. p. 182.
- [7] Shaoguang Wang, “Estimating China's Defense Expenditure: Some Evidence from Chinese Sources,” *The China Quarterly*, No. 147 (September 1996); 미국방부 2010년판 QDR.
- [8] IISS, *Military Balance 2003 & 2010*.

■ 저자소개 ■

백 병 선(E-mail: roksback@hanmail.net)

1999 해군사관학교 졸업(학사)

2004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졸업(석사)

현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박사과정

관심분야 해양전략, 초국가적 위협, 평화유지활동(PKO), 동맹관계, 국방예산 등

문 장 렬(E-mail: jmoon@kndu.ac.kr)

1982 육군사관학교 졸업(학사)

1987 미국 Purdue University(석사)

1991 미국 Purdue University(박사)

현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관심분야 과학기술과 국가안보정책,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군사변환 및 국방개혁, 정보전, 미국의 군사정책과 전략